

등장인물

영조

조선 제 21대 임금

당시 극심했던 당쟁을 타파하는 탕평책을 추진하였으며, 백성에게 가혹한 형벌금지, 신문고제도 부활, 서얼 등용, 사형수 3십제 강화 등 백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백성의 양역 부담을 줄여주는 균역법을 시행하고 기득권의 양보를 얻어 내는 등의 민생 개선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영빈이씨

영조의 총관후궁

어려서부터 궁녀생활을 하다 귀인이 되었으며 영조 6년(1730년) 영빈으로 봉해졌다. 1735년 창경궁의 집복헌에서 사도세자를 출산하였으며, 정조의 친할머니이기도 하다.

정조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뒤를 이어 25세로 즉위하여 조선 22대 임금이 된다. 할아버지인 영조의 탕평론을 계승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수원에 화성을 축조하여 사도세자의 묘소를 화성으로 옮겼으며, 재위기간 중 100회 이상 참배를 다녔다.

정순왕후

영조의 계비

어린 나이에 절개와 총명함을 갖추어 삼간택(임금이나 세자 또는 세손의 신부를 세 번에 걸쳐 고르는 일을 거쳐 영조 35년(1759년) 15세 나이로 51세 연상인 영조와 결혼하여 왕비로 책봉되었다.

박문수

조선 후기의 문신 호는 기은(耆隱)

경종 3년(1723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었다. 그 후 병조판서를 지내고 1749년 호조판서가 되어 양역(良役)의 폐해를 논하다가 충주목사(忠州牧使)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군정(軍政)과 세정(稅政)에 밝았으며, 특히 암행어사 때의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창경궁 속 영조의 발자취를 따라서

창경궁(昌慶宮)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거처하였던 옛 수강궁 터에 성종 15년(1484년) 당시 생존하였던 세 왕후(세조·덕종·예종)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조선시대 궁궐 중 유일하게 동쪽을 향해 지어진 궁궐로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이라 불렸다.

영조시대 창경궁은 왕의 가족인 왕비·후궁의 일상 생활공간이자 세자 교육장소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국왕의 집무공간으로도 일부 활용되었다. 영조는 이곳에서 정순왕후를 맞이하였으며, 왕자(사도세자)와 왕손(정조) 탄생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창경궁은 동·식물원인 창경원으로 격하되어 사용됨에 따라 다시 한 번 궁궐의 모습이 크게 훼손되었다. 1983년에서야 다시 복원이 시작되면서 동·식물원 시설 및 일제의 잔재가 철거되어 비로소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300여 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

‘궁궐 일상을 걷다- 영조와 창경궁’

‘궁궐 일상을 걷다- 영조와 창경궁’은 조선시대 창경궁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극으로 재현하여 역사 속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프로그램으로, 조선시대의 궁궐 생활상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이다.

창경궁 고유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300여 년전 영조 임금의 일상의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살아있는 고궁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2016 궁궐 일상을 걷다

영조와 창경궁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문화유산 3.0 [개방·공유·소통·협력]

KING YEONGJO AND CHANGGYEONGGUNG PALACE



상반기 5월 6일 / 5월 7일~5월 22일 (매주 토·일)

하반기 10월 1일~10월 9일 (매주 토·일)

장소 창경궁 일원 시간 1부 13:30 / 2부 14:30

주최 문화재청 주관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문의처 02-3210-1645~6

프로그램 순서

명정문 > 명정전 > 문정전 > 함인정 > 경춘전 > 환경전 > 통명전 > 집복헌·영춘헌 > 명정문

5 경춘전 景春殿
왕세손(정조)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영빈과 함께 크게 기뻐한다.

4 함인정 涵仁亭
문무과에 급제한 유생들을 만나 어사주를 하사하고 격려한다.

3 문정전 文政殿
현명한 군주가 되기 위해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고 신하들과 경연한다.

6 환경전 歡慶殿
왕세손(정조)이 시강연에서 영조가 집필한 자성편(自省編)을 강독한다.



7 통명전 通明殿
15세의 어린나이에 왕비로서의 절개와 총명함을 갖추어 삼간택까지 올랐던 정순왕후를 맞이한다.

8 집복헌 集福軒, 영춘헌 迎春軒
영조가 백성들의 시름을 근심하며 균역법 반포를 결심한다.



2 명정전 明政殿
오랜 가뭄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걱정하여 기우제를 지낼 것을 명령한다.

1 명정문 明政門
시작을 알리는 정소리와 함께 승전 내시가 나와 왕명을 전한다.



9 명정문 明政門
홍화문에 친히 나가 균역법을 반포하여 새로운 시대의 발판을 마련한다.

* 명정문에서 출발하여 명정문에서 종료됩니다. 전체 행사는 40여분 소요됩니다.
* 하반기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